

전남도, 부적격 건설사 15곳 퇴출·25곳 영업정지

39곳은 청문·자본금 재심사... 지역업체 파장을 뒀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업계 불황이 지속하면서 전남지역 부적격 종합건설업체들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

전남도는 23일 "이 지역 종합건설회사 가운데 최근 부적격 혐의가 있는 107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종합건설업체 수십 곳에 대해 영업정지와 퇴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전체 건설업체 949개사 가운데 424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가 이 가운데

부적격 업체를 추려냈다.

이중 자본금 재심사와 기술자, 사무실 확보 등 해명자료를 제출한 28개사를 무혐의 처리하고 79개사를 부적격 업체로 확정했다.

도는 이달 초부터 청문절차에 들어가 25개사는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영업정지, 15개사는 등록말소로 건설시장에서 퇴출시켰다. 다음달까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청문과 자본금 재심

사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32개사는 청문절차가 진행중이며 6개사는 자본금 재심사, 1개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실태조사는 3년 평균 매출 100억원 이상,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 등을 제외한 42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전남도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상 전화번호가 다

른 지역에 등록된 업체 527곳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134개사가 서류상 업체인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도내 종합건설업체 총 계약액은 7조4592억원으로 업체당 78억원에 불과하는 등 심각한 건설경기 부진을 반영하고 있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삼계탕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3일 중복을 맞아 광주 동구 혜성교회 ‘사랑의 식당’에서 소외된 독거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저비용항공사 상반기 국제선 승객 47% 증가

국내선은 8.3% 늘어

항공여행 수요 증가와 국제노선 확대 덕분에 저비용항공사의 상반기 국제선 승수 실적이크게 늘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738만명으로 작년 동기(627만명)보다 21% 증가했다.

국내선은 51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2만명보다 8.3% 늘었다.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43.1%에서 47.8%로 상승했다. 김포~제주, 김해~제주, 김포~김해 등의 노선은 저비용항공사의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상이다.

국제선 승객은 226만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54만명보다 46.5%나 늘었다. 국제선 시장 점유율은 9.3%로 작년 동기보다 2.5% 포인트 올랐다. 특히 인천~괌, 김해~후쿠오카 노선의 저비용항공사 점유율은 배로 뛰어 50%를 넘었다.

반면 대형 항공사의 국내·국제선 승수실적은 공급량 감소와 엔저 현상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줄었다.

국내선에서 대한항공은 승객 334만명으로 14.5% 감소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18만명으로 3.9% 줄었다. 국제선에서는 대한항공은 812만명으로 2.6% 감소했고 아시아나항공은 566만명으로 5% 증가했다. <연합뉴스>

너무 많은 증권사... 점유율 2% 미만 48개

1위 키움증권 수익은 9위

62개사 수수료 인하 경쟁

국내에서 영업 중인 62개 증권사 가운데 주식거래 시장점유율이 2% 미만인 증권사가 무려 4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주식거래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한 키움증권도 수수료 수익에서는 9위를 차지하는데 그쳐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5%), 삼성증권(5.2%), 대우증권(4.9%), 동양증권(4.6%), 현대증권(4.0%), 하나대투증권(3.3%), 대신증권(3.1%) 등의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체 증권사 62곳 중 이들 14곳을 제외한 48곳은 시장점유율이 2% 미만이다. 시장점유율이 1%대인 곳이 11곳이고 나머지 37곳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RBS증권과 KIDB채권증권 2곳은 주식 거래 중개에 아예 없다. 증권사 중에는 채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더 의존하는 곳들도 있다.

이에 따라 출혈 경쟁으로 수익이 줄어들자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금융당국은 인위적인 수수료 인상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주식 거래대금 3243조2129억원 가운데 키움증권이 중개한 금액이 486조7925억원으로 15.0%를 점유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래에셋증권(7.0%), 신한금융투자(6.3%), 한국투자증권(5.7%), 우리투자증권(5.7%), 삼성증권(5.2%), 대우증권(4.9%), 동양증권(4.6%), 현대증권(4.0%), 하나대투증권(3.3%), 대신증권(3.1%) 등의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체 증권사 62곳 중 이들 14곳을 제외한 48곳은 시장점유율이 2% 미만이다. 시장점유율이 1%대인 곳이 11곳이고 나머지 37곳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RBS증권과 KIDB채권증권 2곳은 주식 거래 중개에 아예 없다. 증권사 중에는 채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더 의존하는 곳들도 있다.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와 수익률 향상을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자 투자자들이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더 싼 곳으로 몰린 것이다.

증권사들은 고객 자산가, 법인에게는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더 깎아준다. 약정 기간, 수익 기여도 등을 고려해 증권사와 투자자가 협의해 수수료를 정한다.

이처럼 증권사들의 저가 출혈 경쟁으로 수수료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거래 부진까지 겹치자 증권사들의 수익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연합뉴스>

2분기 카드사용액 증가율 역대 최저치

총 136조 4.1% 증가

2005년 이후 가장 낮아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으로 지난 2분기 카드사용액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카드승인금액은 총 13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협회가 카드승인실적 자료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저수준이

다. 분기별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2011년 2분기에 19.1%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감소해 분기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분기 면세점(-20.8%), 특가호텔(-17.1%), 관광호텔(-8%), 여행사(-0.8%) 업종의 카드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하락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소비 조절이 쉬운 여행관련 소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6월 한 달간 카드 사용액은 44조 5000억원으로, 카드 종류별 사용 비

중이 신용카드 36조9000억원(82.9%), 체크카드 7조4000억원(16.7%)을 기록했다. 전체카드 대비 체크카드 사용액 비중은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6월 들어 16.7%를 기록하며 전월(16.8%)에 비해 소폭 감소하면서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6월 카드 종류별 평균결제금액은 전체카드 4만8571원, 신용카드 5만 9147원, 체크카드 2만5690원으로 나타나 체크카드를 중심으로 한 카드 결제의 소액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윳값 인상 업계간 ‘눈치보기’ 치열

원유가격 내달 올라

시기·폭 놓고 저울질

원유(原油)가격이 다음달 1일부터 오를 것으로 결정되자 우윳값 인상을 놓고 업계간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원유 가격은 내달 1일부터 12.7% 뛰지만 제조업체들은 정각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원유값 적용 시기가 다음달 초로 코 앞에 닥친 만큼 다음달 중순에는 우유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유업계 대표 업체인 서울우유도

제품 인상 시기와 그 폭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서울우유 측은 조만간 조합 기획실 주재로 회의를 열어 원유값과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을 고려해 인상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안 결정은 내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인상시기는 8월 15일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인상 폭은 15% 안팎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인상폭을 15%로 가정할 경우 마트에서 2300원에 팔리는 1ℓ 들이 원유 값은 345원 가량 오른 2천645원이 된다.

서울우유가 가격을 먼저 올리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등 다른 유업체들도 뒤를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유업체도 가격 인상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1년 원유가격 인상 때도 서울우유가 가격 인상안과 폭을 결정한 후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차례로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가격 인상이 다음달 1일로 확실하기 때문에 우윳값 인상을 마냥 늦출수는 없다”면서도 “대형마트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전남신용보증재단 고흥지점 개점 3500여개 사업체 보증서비스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계연)은 23일 박병중 고흥군수,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등 유관기관

KT고흥지사 3층에 위치한 고흥지점은 고흥, 보성 소재 350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순천, 화순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돼 고객 편의 증진 및 보증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전남신보는 상반기 지역 서민들에게 1618억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신규보증 실적이 11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2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무안 - 심양전세기 [7/26~9/30 매주 월,수,금]

심양 / 백두산서퍼 5일[월]

일급 1,090,000 특급 1,190,000

심양/백두산서퍼/북퍼 6일[수/금]

일급 1,190,000 특급 1,290,000

무안공항에서 동방항공으로 떠나는 상해/구제구 6일

일급 1,299,000

오사카&와카야마

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제일의 상업도시 오사카&아름다운 태평양과 환상적인 온천이 어울어진 와카야마!

강추 히타 고금 별장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299,000~

출발일 7/31, 8/9, 15, 18, 23, 28

※출발 가능한 인원: 최소 6명, 최대 23명

※불포함 사항: 선내식사 3식, 국내수송, 유류할증료

추석연휴 9/20~23일

히타 고금 별장으로 떠나는 규슈 3박 4일 399,000~

일본 규슈 온천 여행

규슈, 기타큐슈, 히타, 아소 + 야마구치 발장 온천즐거기 4일 399,000~

규슈, 기타큐슈, 히타, 아소 + 전통로칸 야마구치 온천즐거기 4일 539,000~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텐보스 4일 629,000~

출발일 7/31, 8/9, 15, 18, 23, 28

규슈, 유후인, 벳부, 히타, 아소 + 전통로칸 야마구치 온천즐거기 3일 699,000~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필리핀여행

7월 25일부터 무안(→)마닐라 직항 추항(매주목,일요일 출발)

마닐라 3박4일(아파막발사88은천)

준급 778,000~ 특급 858,000~

특전: 파기아미아 전일대, 스타벅스 음료, 발사투어(준부시, 스노클링, 비치, 바비큐, 8000스프링, 특식, 워터스키, 카바리, 워터스포츠, 유류할증료(108,800), 기사&가이드(408))

[Heading Manila] 마닐라, 바랑가스 4박 5일

1,099,000~

특전: 아일랜드호텔투어, 파기아미아관광, 오일맛시지 1시간, 열대일식 시식, 불포함사항: 유류할증료(108,800), 기사&가이드(408)

무안공항 출발 베트남 전세기

7/20, 7/24, 7/28, 8/01, 8/05, 8/09

다낭+호이안+후에성 1,099,000~

다낭+호이안 (아일랜드호텔투어 +스노클링) 1,149,000~ 특급 1,299,000~

몽고메리C.C + 다낭C.C (주중기준) 1,449,000~ 특급 1,599,000~

불포함: 유류세(140,000원), 기사&가이드 팁, 주말&공휴일 추가요금, 콜라식, 케디팁

7/27, 30, 8/2, 5 [단 4회!!!]

무안-마카오/홍콩 4일 899,000~

무안-마카오/홍콩/심천 4일 949,000~

무안-마카오 4일 1,099,000~

8/7, 10, 14, 17 [단 4회!!!]

무안-세부 4일 899,000~

무안-세부 5일 999,000~

여름방학 기획특가

무안-북경/만리장성 4일 399,000~

무안-북경/만리장성 5일 469,000~

무안-북경/태항산 4일 799,000~

무안-북경/태항산 5일 849,000~

불포함: 유류세, 기사&가이드팁, 중국면세비

국내여행/섬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26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W10,000), 식비, 유류할증료(W22,000)

선박 목포-제주도 2박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W10,000), 현지저녁관광, 자유식비

9/5 출발 확정! ALL 포함!!

인천/연길 백두산 4일 1,050,000

불포함: 개인적인 경비, 광주-인천 수송비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편도) 33,000

※광주출발 목포항 도착 셔틀버스포함

홍도, 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188,000~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48,000~

포함사항: ALL포함, 장급(합숙기준)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도 표시, 광고실적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종다 2003-1호

*공동조각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예외상환: 1억원, 국내상환 5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준비 기입업체 *예약시 계약서(회사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경비(음식,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석권,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